

실로암 한인 침례 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SBC)

July 12, 2026, 10:30 a.m.

Ordinary Times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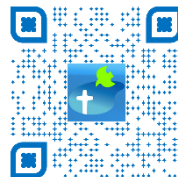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siloamkbc.org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www.siloamkbc.org

예배 순서 WORSHIP ORDER

예배 인도자 Presi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인도자 Presider

예배 기도 Invocation..... 인도자 Presider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019 찬송하는 소리 있어 Hark, Ten Thousand Harps and Voices

H412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Far Away in the Depts of My Spirit

C1201 우물가의 여인처럼 Like the Woman at the Well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뒤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마태복음 Matthew 13:1-9, 18-23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마음 밭의 비유 The Parable of the soils of hearts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620 여기에 모인 우리 We Will Keep Our Faith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신도 사무 총회

- 중간 재정 보고
- 예배 장소 이전
- 이낙원 선교사 재정 지원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교회를 위하여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
- 자녀들
- 주위에 전도 대상자
- 여행하는 분들
- 권세자들

THE FIRST LESSON 창세기 GENESIS 25:19-34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4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
27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시편 PSALM 119:105-112

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06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7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어나게 하소서
108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109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11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THE SECOND LESSON 로마서 ROMANS 8:1-11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 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본문 함께 살펴보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성경 전체 중에서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책입니다. 그중에서도 로마서 8 장은 복음의 절정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완벽하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 직전인 7 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죄의 비참한 노예 상태를 고백하며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8 장에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위대한 해방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이 섞여 있었으며,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무거운 압박과 핍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한계 부딪히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율법의 힘으로는 결코 인간을 죄에서 건져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벌하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음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침례를 통하여 연합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질긴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참된 자유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바울은 신자의 삶이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이끌려 다니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고 걸어가는 영적인 삶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본문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정죄함의 해방'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삯은 사망이며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음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법적 정죄나 영원한 형벌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정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선명한 대조'입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정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며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성령님께 사로잡힌 생각은 우리 마음에 참된 생명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부활의 보증과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그 중심에 살아 계십니다.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비록 우리의 겉사람과 육체는 세월이 흘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죽을 몸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일 삶의 자리에서 죄책감과 정죄감이라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마주하곤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여전히 반복되는 부끄러운 연약함 때문에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는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십니다. 이 복음의 선언을 붙잡고 사탄이 주는 참소와 죄책감에서 당당히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매순간 "지금 내 마음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내 고집과 세상의 염려, 혹은 물질적인 편안함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참 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영적인 침체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반면, 아무리 육신이 약해지고 삶의 형편이 고단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생각을 품으면, 우리 영혼은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내 생각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노화와 질병, 그리고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위대한 산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육체가 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며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장차 우리의 썩을 몸을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바꾸실 능력의 영이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믿을 때, 우리는 노년의 삶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매일을 소망과 존엄함 속에서 깨끗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이나 영적인 정죄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8 장 1 절의 말씀("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이 그 문제에 어떤 위로와 해방감을 주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2.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의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했던 생각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3.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약속(11 절)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육체적인 약함이나 노화, 혹은 질병의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꾸어 줍니까?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참된 해방을 주시니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침례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 들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세상의 썩어질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 우리의 육신이 늙아지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낙심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장차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영광스럽게 살리실 부활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남은 평생을 두려움 없이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GOSPEL 마태복음 MATTHEW 13:1-9, 13:18-23

-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 2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 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 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 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 7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 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 18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 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 20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 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 23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